

日・中・韓 意見交換会
新型コロナ禍の人形劇事情



於：日本／市ヶ谷スペインクラブ / 2023年 8月 8日

報告者 大場隆志 (日本国)

公益財団法人すぎのこ芸術文化振興会理事長

新型コロナ禍と人形劇事情

日本では、2020年3月13日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に基づく措置として、緊急事態宣言が発令されました。

人形劇や演劇などの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業界は、リアルな顧客体験が最大の価値でしたが、コロナ禍の影響で人との接触が三密（密集、密接、密閉）となり、非接触化の促進が求められました。人との接触が抑制されるコロナ禍との相性が悪いことから、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を抑制するうえで、活動や集客を停止すべき不要不急の産業とされ、営業活動の自粛に追い込ま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

その結果、ナマ舞台を観るのではなく、無観客ないし、観客数を大きく制限される中でのライブ配信に重点が置か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かしライブ配信はあくまでパソコンやスマホなどの画面越しにパフォーマンスを見るものであるため、視聴体験だけを切り出してみれば、リアルに劣ってしまい、顧客に対して価値を打ち出しにくいという課題も浮き彫りになりました。

特に児童演劇を幼稚園、保育園に届けてきた私たちの劇団にとっては大きな課題となりました。

すぎのこ芸術文化振興会の理念でもあります「子どもたちに生の舞台を届ける」というナマの演劇を届け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から、配信動画を提供してきましたが、動画配信だけでは、一体感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伝わりにくく、リアルとの違いが大きすぎるということで、なかなか受け入れて頂く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コロナ禍の約3年間は、これからの教育に求められる演劇教育と人形劇の在り方を、演劇的メソッドを手段として活用し、真の人間力を育むことを目的とする教育としての「演育」について演育研究会を通じて、理論と実践の構築をしてきました。

AI時代を迎えるこれからの教育では、「表現力」「コミュニケーション力」「創造力」が求められていますので、「演育」の普及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보고자 오오바 다카시 (일본)

공익재단법인 스기노코 예술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형극 사정

일본에서는 2020년 3월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근거하는 조치로서,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되었습니다.

인형극이나 연극 등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리얼한 고객 체험이 최대의 가치였습니다만,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삼밀(밀집, 밀접, 밀폐) 제한이 생겨, 비접촉화의 촉진이 요구되었습니다.

사람간의 접촉이 제한되는 코로나 사태와는 상성이 좋지 않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과 관객 유치를 막아야하는, 필요없는 산업으로 취급되어, 영업 자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무대 공연을 보는 게 아닌, 무관객 또는 관객수를 크게 제한하는 라이브 송신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이브 송신은 어디까지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화면 너머로 퍼포먼스를 보는 것이기에, 시청체험만으로는 실제로 관람하는걸 따라갈 수 없어, 고객에게 가치를 내보이기 어렵다는

과제가 새로이 부상했습니다. 특히 아동극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피로하고 있던 우리 극단에게는 더욱 커다란 과제가 되었습니다.

스기노코 예술문화진흥회의 이념이기도 한 '어린이들에게 실제 무대를 보여준다' 라는 뜻을 펼칠 수 없게 된 대신 영상을 제공해 왔습니다만, 영상 송신만으로는, 직관 무대의 일체감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전해지기 어려워 그 차이가 심해, 이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약 3년동안, 앞으로의 교육에 요구되는 연극교육과 인형극의 본연의 모습을, 연극적 메소드를 활용해, 진정한 인간성을 키우는 목적을 가진 '演育(엔이쿠),연육'에 관한 연구회를 통해, 이론과 실전을 구축해 왔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는 앞으로의 교육에서, '표현력', '커뮤니케이션력', '창조력' 이 요구되고 있기에, '演育(엔이쿠),연육' 의 보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汇报人：大场 隆志 （日本国）

公益财团法人杉之子艺术文化振兴会理事长

新冠疫情与木偶剧情势

作为应对新冠疫情的措施，日本于2020年3月13日发布了紧急事态宣言。

在木偶剧、戏剧等演艺娱乐行业，观众的临场体验曾经是最大的卖点。但由于新冠疫情的影响，人与人的接触变成了三密（密集、密接、密闭），政府提倡大家尽量不要互相接触。演艺娱乐行业由于与新冠疫情的兼容性差，无法避免人与人的接触，因此被定位成了非必要、非急需的行业，并被要求自我约束，停止活动及招揽观众，以控制新冠病毒的传播。

受此影响，大多数剧团将观剧方式的重点从观看现场表演转移到了无现场观众或限制观众数量的情况下进行的现场直播上。

然而，由于直播是通过电脑、智能手机等屏幕观看表演，单纯就视听体验而言，会大大逊色于现场表演，也很难为观众提供临场般的观剧价值。

尤其是对于我们杉之子这样以面向幼儿园、托儿所的访问式演出为主体的儿童剧团而言，这是一个巨大的问题。

由于新冠疫情的影响，无法按照杉之子艺术文化振兴会“为小朋友们送

上

鲜活的舞台艺术”的理念来进行现场演出，才会在疫情期间在网络上提供视频转播表演。但仅是视频转播的话，存在着无法身临其境和沟通起来很困难等问题。并且因为与现场演出的差异太大，而导致受众有限。

在新冠病毒横行的三年里，我们一直在通过演育研究会的形式，将在今后的教育中需要的戏剧教育和木偶剧的教育方法结合理论及实践，不断完善以培养真正的人间力”为目的的“演育”计划。

进入 AI（人工智能）时代的教育需要“表达能力”、“交流能力”和“创造能力”。我们将在今后的活动中，将其融入到普及“演育”之中。

보고자 조용석 (대한민국)

현대인형극회 대표

(1)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극단들은 공연할 기회를 잃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단원들의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 (경제적 타격으로 극단을 떠나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비대면 공연을 준비하는 극단도 있었지만 구성이 미흡하고 공연 작품 횟수의 부족으로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다.

(2)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현상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공연에서 대면 공연으로 바뀌었지만 공연장을 찾는 관객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공연의 침체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단들은 새로운 단원들을 모집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3)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대응

- 공연을 위주로 하는 전략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극단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 소그룹을 타킷으로 하는 공연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 관객이 있는 유치원과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도 필요하다.

- 아동과 함께하는 인형극 교실을 만들어 아동들이 직접 극본도 쓰고 주인공 캐릭터도 만들어서 소규모의 공연까지 완성하는 작지만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지역의 역사나 전설을 인형극으로 재탄생시켜 그 지역 주민들을 교육시켜 인형극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향후 대책 및 과제

인형극이 내리막길에 접어든 지금 인형극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인형극으로 재탄생시키는 극단의 노력과 훈련이다. 현대 인형극회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공연도 하면서 인형극을 보급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여 그 고장의 역사와 전설을 인형극으로 탄생시켜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 축제에서 공연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결과적으로 애향심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고향의 역사와 문화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보람된 결과를 가져왔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공연은 쉬었지만

지역의 역사를 찾고 공부하는 시간은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다.

報告者 趙容奭 (大韓民国)

現代人形劇會代表

(1) コロナ禍の影響

コロナ禍によって劇団は公演する機会を失って経済的に大きな打撃を受け、団員たちの崩壊現象が起きた。(経済的な打撃により劇団を去る。)

コロナ禍が長くなり、非対面公演を準備する劇団もあったが、構成が不十分で公演作品の回数の不足で結果的に大きな効果を得られなかったと思われる。

(2) コロナ禍以後の現象

コロナ禍以後、非対面公演から対面公演に変わったが、会場を訪れる観客が増えず、公演の低迷期は続いている状況だ。劇団は新しいメンバーを募集し、準備する時間が必要だ。

(3) コロナ禍以降の対応

- 公演を中心とする戦略から教育プログラムも並行する戦略に

転換してこそ、劇団を長く維持できる。

- 小グループをターゲットとする公演を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 観客のいる幼稚園や学校を訪れる公演も必要だ。
- 児童と共にする人形劇教室を作って児童たちが自ら脚本を書いて、主人公キャラクターも作って、小規模の公演までを完成する小さいが総合的な教育プログラムが必要だ。
- 地域の歴史や伝説を人形劇として再誕生させ、その地域の住民たちを教育させて人形劇の主体になるようにする事が必要だ。

(4) 今後の対策及び課題

人形劇が下り坂に入った今、人形劇を守る最も良い方法は、その地域の歴史と文化を人形劇にする劇団の努力と訓練だ。

現代人形劇会は 2000 年から今迄、上演しながら人形劇を普及する為に地域住民達を指導し、その地元の歴史と伝説を人形劇として誕生させ、小学校、中学校、地域の祭りで公演を続けている。

このような活動は結果的に愛郷心を持つようになり、自分たち

の故郷の歴史と文化を次世代に伝授するやりがいのある結果をもたらした。 コロナ禍で公演は休んだが、地域の歴史を探して勉強する時間は休まずに続けることができた。

汇报人： 赵 容奭 （大韩民国）

现代木偶剧院代表

(1) 新冠疫情的影响

由于新冠疫情的原因，剧团失去了很多演出机会，经济遭受巨大打击，导致团员流失现象严重。（因经济打击而离开剧团）

随着新冠疫情的持续，虽然一些剧团组织了线上演出，但由于缺乏这方面的演出经验及作品不对口等原因，似乎未能收获明显效果。

(2) 新冠疫情之后的现象

新冠疫情发生以来，线上演出虽然逐渐改为了线下演出，但到演出场馆的观众数量并没有明显增加，演出持续低迷。剧团需要大量时间来招募及培养新成员。

(3) 新冠疫情之后的应对措施

- 剧团只有从以演出为中心的战略转变为演出与教育类企划双管齐下的战略，才能保持良好的发展状态。
- 必须准备一个或多个面向小团体的演出。并且需要策划一个或多个只需少量演员就能够完成的演出。
- 还需要有面向幼儿园和学校的访问式演出。
- 有必要创建一个与小朋友们互动的木偶剧教室。需要打造一个能够指导孩子们自己写剧本、创造主角，并完成小型表演的综合型教育类企划。
- 有必要以木偶戏的形式再现当地的历史和传说，并向当地居民普及木偶剧。

(4) 今后的对策及课题

现在木偶剧已经在走下坡路，保护它的最好办法就是通过剧团的努力和培训，以木偶剧的形式再现所在地区的历史和文化。

自 2000 年以来，现代木偶剧院一直致力于表演及向当地居民普及木偶剧。通过在初中、高中、地区集会等的演出活动，既激发了人们的爱乡热情，又达成了将家乡的历史文化传承给下一代的效果。

尽管由于新冠疫情，演出被取消，但我们探寻和研究所在地区历史文化的进程从没有间断。

□□□：焦 達 （中华人民共和国）

木偶美术家·中国木偶皮影□□学会全国理事

新型疫情的三年间，全球性的影响也無幸免地波及到了中国人形劇及影绘劇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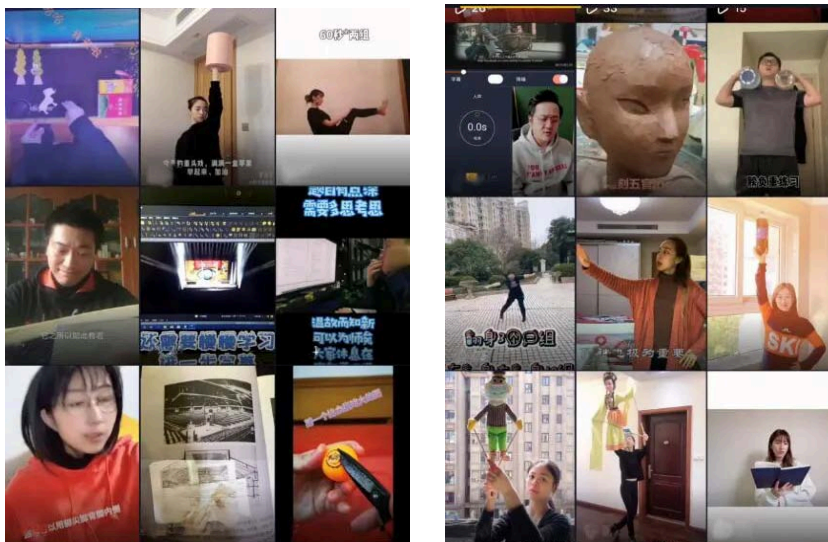
2020年初，应UNIMA要求，中国上海戲劇学院人形劇專門科准备了《海关》舞台劇的制作，原计划前往参加在巴厘岛(印度尼西亚)的世界人形劇大会，最终被取消。一些原定的国际文化交流项目也遭遇停摆，例如一年一度的上海国际艺术节和二年一度的国际木偶节。(photo：上海戲劇学院)



各地区人形劇及影绘劇的劇場公演被停止，大部分公立的和民营劇團只能在线上发布劇目视频，无疑对发展和经济收入方面带来了很大影响和损失。学校和幼稚园的公演除少数地区外至今仍然没有开放。

为了振兴国内业界同仁们对人形劇影绘劇的发展信心及提高在国内戲劇艺术界的影响和地位，二年前尽管疫情严重，各地艺术家们仍然顽强地进行各种创作和艺能练习，在各自的位置上坚守。

(photo：上海木偶劇團)



2020 年的下半年，疫情 虽有好转，但演出市场依然不景气。

2021 年以来，演出市场情况有所好转。

(photo：黑龙江木偶劇團)



作为联合国教科文组织认定的非物质文化遗产

产(intangibleculturalheritage),

教育部门对在大学以及中小学中宣传推广人形劇影绘劇还是比较注重的。

他们把这一传统文化教育编写了系统的教材，活用在各种教育形式中。

(photo：上海的一所学校影绘劇展示馆和学生的操作体验)



值得注意的是疫情后除了国有劇團外，各地一些民营團体的演出活動也很活躍。他们大多是自负盈亏从事各种形式的商业活动，我所在的

上海市，每逢周末或假日的親子劇場，演出頻繁、兒童觀客踊躍；即便是地方城鎮這樣的情況仍很普遍。這也是繼疫情後，各地政府開放旅遊文化市場的一項舉措。中國人形劇學會近年來也為此做了不少努力，除了2020年和2022年因為疫情原因被取消外，每年一度的年會依然如期舉辦；同時也在全國範圍內多次主辦或協辦各類藝術活動，旨在提高國內業界的交流和藝術上的提高。但是因為前



(photo: 人形劇學會的會刊)

三年的各種原因，國際間的交流仍未能如願進行。

這次疫情令人惋惜地迫使人形劇影繪劇中斷了國際間的正常交流 and 發展。

事實上兒童劇和人形劇(影繪劇)的市場還是不小的，行業內的藝術家們也在為如何發展和振興在努力探索，除了保留一些傳統舞台表演形式外還需要有更多的表演形式融入劇目中，而新劇目創作也是面臨的一大課題，這方面很多藝術家已經在自己的作品中進行了實踐。他們在舞台表現同時也相應的做着對民眾尤其是年輕的觀眾(少年兒童)普及工作，

各种亲子剧场和体验教室，只有这样才能培养我们的观众以保证这一项艺术不被衰亡。

非常赞赏日本杉之子劇團和韩国现代人形劇團前辈们历来的经验，当我每次收到杉之子惠賜的機関紙拜读后深有感触，虽然自己并不拥有演出的劇團，但总希望尽微薄之力为振兴这一艺术做些努力。

報告者 焦 達 (中華人民共和國)

人形美術家・中国人形影絵芸術学会全国理事

コロナ禍の3年間で、世界的な影響は必然的に中国の人形劇や影絵劇界にも広がった。

2020年初頭、UNIMA（国際人形劇連盟）の要請を受け、中国・上海戯劇学院人形劇学科は舞台『税関』の制作を準備し、当初はバリ島（インドネシア）で開催される世界人形劇フェスティバルに参加する予定であったが、結局中止で出来なかった。毎年開催される上海国際芸術祭や隔年開催の国際人形劇フェスティバルなど、当初予定されていた一部の国際文化交流プロジェクトも中止された。（写真:上海戯劇学院／13頁）

各地で人形劇や影絵劇の公演が中止され、公立・民間の劇団の多く

はレポートリー動画をオンラインで公開することしかできず、発展や経営等に多大な影響と損失を被ってしまった。

学校や幼稚園での公演は一部の地域を除いて、引き続き公演できない状態となっている。

国内同業者の方々の人形劇や影絵劇の発展に対する自信回復を図り、国内演劇芸術業界における影響力と地位を向上させるために、2年前の

深刻な感染症の状況にも関わらず、各地の芸術家が依然として様々な創作や練習を怠りなく行い、自分の役割を果たしてきた。

(写真：上海人形劇団／14頁)

2020年下半期、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は緩和したものの、演劇業界の不景気が続いている。

2021年以降、演劇業界の景気は少しずつ好転してきた。

(写真：黒龍江人形劇団／14頁)

ユネスコが認定した無形文化遺産として、教育部門は今でも大学、中学校、小学校における人形劇、影絵劇の普及促進に力を入れている。この伝統文化教育のために系統的な教材を編纂し様々な教育に活用している。

(写真：上海の学校の影絵劇展示ホールと生徒の操縦体験／15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収束後、国営の劇団に加えて、各地の民間団体も公演を非常に活発的に行っていることは注目すべきである。その多くは自費でさまざまな事業活動を行っており、私の住む上海では週末や休日になると、親子劇場で頻繁に公演が行われ、子ども達が熱中するなど、地方都市等でも同じような状況である。これ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収束後、観光・文化市場を開放するための地方自治体による取り組みでもある。 中国人形劇学会も近年多くの努力を払っており、コ

ロナ禍による 2020 年と 2022 年の中止を除き、年次総会は予定通り開催されており、国内業界交流と芸術の向上を目的としている芸術活動を多数行ってきた。しかし、コロナ禍の3年間は、様々な理由により、国際交流は思うように進めなかった。（写真：人形劇学会の会誌／16頁）

残念なことに、コロナ禍の影響により、人形劇影絵劇業界が通常の国際交流と発展の中断を強いられている。 実際、児童劇や人形劇（影絵劇）の市場は小さくなく、業界のアーティストたちもその発展と活性化する方法を模索しており、伝統的な舞台公演を残しつつ、より多様な舞台公演形式を取り入れる必要がある。新たなレパートリーの制

作も大きな課題であり、すでに多くの芸術家が自分自身の作品に様々な舞台公演形式を取り組み、実践している。舞台活動と同時に、若い観客（子ども達）を中心とした一般観客への普及活動にも励み、親子劇場や体験教室等を開催し、児童劇・人形劇（影絵劇）の継続と発展のために、観客の育成と芸術の継承に努めている。

日本の劇団すぎのこと韓国の現代人形劇会の先人の方々の経験は非常に素晴らしく思い、すぎのこさんから季刊紙をいただく度に感動しております。自分は劇団を所有していませんので、些細ではありますが、この芸術文化活動の活性化のために、力を尽く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보고자 초 달 (중화인민공화국)

인형미술가 /중국 인형,그림자 그림 예술 학회 전국이사

코로나 사태 3 년간, 범세계적 영향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인형극, 그림자극 업계에도 퍼졌다.

2020 년 초반, UNIMA (국제 인형극 연맹)의 요청을 받아, 중국 상하이 연극 아카데미 인형극과에서 무대극 '커스텀(세관)'의 제작을 준비했으며, 당초 발리(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세계 인형극

페스티벌에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취소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상하이 국제 예술제와, 격년 개최되는 국제 인형극 페스티벌 등, 당초 예정돼있던 일부 국제 문화 교류 프로젝트도 중지됐다.

(사진: 상하이 연극 아카데미 / P.13)

각지에서 인형극과 그림자극의 공연이 중지됐고, 대부분의 공립, 민간 극단은 레퍼토리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만 할 수 있어, 발전과 경영 등에 지대한 영향과 손실을 주었다.

학교와 유치원에서의 공연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공연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2년전의 심각한 감염증의 상황에도 상관없이, 국내 업계 동료들의 인형극, 그림자극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꾀하고, 국내 연극예술 업계의 영향력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 각지의 예술가들이 변함없이 다양한 창작활동과 연습을 해가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사진설명: 상하이 인형극단 / P.14)

2020 년 하반기,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완화되었음에도, 연극업계는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2021 년 이후, 연극업계의

경기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사진설명: 흑룡강 인형극단 / P.14)

유네스코가 인정한 무형 문화유산이기에, 교육부는 지금도 대학 및 초등,중등 교육에서 인형극과 그림자극의 보급 촉진에 힘쓰고 있다. 전통 문화 교육을 위해 체계적인 교재를 편찬해, 여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사진 : 상하이의 한 학교의 그림자극 전시장과 학생의 시범 체험 / P.15)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국영 극단에 더해, 각지의 민간 단체도 공연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어 주목할 부분이다. 대부분이 사비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상하이에서는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가족극장에서 빈번하게 공연을 하고 있기에, 아이들이 열중하고 있다. 이걸 지방 소도시 등에서도 같은 상황이다. 또한 이것은 코로나 사태 종료 후 관광, 문화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지방 지자체의 대책이기 하다.

중국 인형극 학회도 근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2020 년,2022 년의 중지를 제외하면, 연차 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되고 있어, 국내 업계의 교류와 예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다수 시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3 년간은, 여러 이유 등으로 국제 교류가 기대했던 만큼 진행되지 못했다.

(사진 : 인형극 학회의 회지 / P.16)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인형극, 그림자극 업계가 통상적인 국제 교류와 발전 중단을 강요받아왔다.

실제로, 아동극이나 인형극 (그림자극) 시장은 작지 않기에 업계 동료들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전통적인 무대공연을 남겨두면서도, 보다 다양한 무대공연 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레퍼토리 제작도 커다란 과제로, 이미 많은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작품에 다양한 무대공연 형식을 도입해, 실천하고 있다.

무대 활동과 동시에, 젊은 관객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일반 관객에 대한 보급 활동에도 힘써, 가족 극장이나 체험 교실 등을 개최해, 아동극과 인형극 (그림자극) 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관객의 육성과 예술의 계승에 애쓰고 있다.

일본의 극단 스기노코와 한국의 현대 인형극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의 경험은 매우 훌륭하다 생각하고 있고, 스기노코의

계간지를 받을 때마다 감동하고 있다.

본인은 극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미력하나마, 예술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싶다.

MEMO

大韓民国／趙容 爽
現代人形劇会代表

中華人民共和国／焦達
人形美術家・中国木偶皮影芸術学会全国理事

日本国／大場隆志
公益財団法人すぎのこ芸術文化振興会理事長

中国語通訳翻訳／柴思萌・韓国語通訳翻訳／七海美流歌

企画制作／公益財団法人すぎのこ芸術文化振興会
東京都豊島区南池袋 4-19-6 ☎03-3984-2396
Mail support@suginoko.org <http://www.suginoko.org/>